

방재시험소를 둘러보고

협회 부설 방재시험소는
지난 9월 12일 국내 손해
보험회사 화재특종업무부
장과 보험공사등 손해보험
업계 관련인사들을 초청,
방재시험소의 각종 시험시
설들을 관람토록 했다.

다음은 시험시설을 관람
한 이들의 소감을 간추린
것이다. <편집자 주>

손보업계 위험 관리업무정책에 기여토록



전 영 회
범한화재·화재특종부장

“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
가입에 관한 법률”에 의거 설립
된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손보업계
의 발전에 기여한 공은 매우 크
다고 본다.

화협이 현재까지 특수건물의 안
전점검과 보험인수를 수행하면서
보험에 대한 인식개선과 화재 예
방 활동을 통한 국가 방재 및 보
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왔음
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된다.

특히 방재시험소의 탄생 또한
화협의 또 하나의 업적이 아닐 수
없으며 시험소의 제 설비로부터
우리 손으로 시험성적을 얻어 낸
다는 점은 곧 손해보험업계의 자
부심이 되었다고 느껴진다.

이와 같은 자부심을 승화시키
기 위해서는 정책차원의 폭넓은
지원, 업계의 지원, 연구요원의 피
나는 노력이 삼위일체가 되어야
한다고 믿는다.

보험의 역사가 깊은 선진 외국
에도 보험업자 연구소가 성공적
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.
또한 시험소 설립 추진시 화협

은 각국의 시험소를 방문하여 많
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중 장점
만을 수렴하여 추진·시행한 것
도 잘 알려져 있다.

다만 각국의 사회적인 구조와
여건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
생각된다.

따라서 국내 실정을 감안해 볼
때 관련단체의 이해 관계에서 오
는 정책적인 지원이나 배려가 가
장 아쉬운 문제가 아닌가 싶다.

현재의 손해보험업계는 국내·
외 여건의 악화로 각 사가 경영
효율화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절
감에 전력을 기울이는 등 점차 위
험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
으며 보험목적물의 사고율 감소
및 보유증대가 관심의 초점이 되
고 있다. 그러나 이러한 위험관리
측면도 실질적인 연구와 인력의
부족으로 그 실효를 거두기는 다
소 시간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.

이와 같은 실정으로 볼 때 방
재시험소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
다고 보겠으며 진정한 보험업자
의 시험소가 되기 위해서는 손보
업계에 위험관리 업무가 정착되도
록 다음과 같은 업무가 추진되었
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.

첫째 위험관리를 산업계 전반
에 확산시키고, 둘째 국내 산업
계에 적절한 위험관리기법을 연
구·개발하여 보급하고, 셋째 손
보사의 사고율 관리를 위한 시험
연구 결과의 제공, 넷째 제반 자
료의 활용 방법 소개등의 업무를
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등이 그
것이다.

앞으로 방재 시험소가 이러한
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업계
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방
재전문 기관으로 발전하기를 바
란다. 